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빅뱅 vs 엑소 vs 2PM 자존심 대결

3대 기획사 대표 가수 잇따라 새 앨범

빅뱅 '루저' '뽕뽕뽕' 각종 음원차트 싹쓸이

'신홍 최강자' 엑소 3일뒤 신곡 발표로 맞붙

2PM 뮤직비디오 일정 차질로 발표 미뤄져

그들 빅뱅, 엑소, 2PM 등 가요계 대형 기획사의 대표 선수들이 6월 새 앨범을 내고 3파전을 벌인다.

일단 승기는 빅뱅이 잡았다. 지난달부터 매일 1일 신곡을 발표 중인 빅뱅은 5월 신곡 '루저'(Loser)와 '배배'(Bae Bae)로

이들 기획사의 간판 그룹으로 자존심이 걸린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2PM은 이들의 격돌 뒤 시간 차를 두고 경쟁에 가세한다는 점에서 자생력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들 뒤인 3일에는 음원과 앨범에서 고루 강세인 '신홍 최강자' 엑소가 등장한다. 중국인 세 멤버의 이탈로 9인조로 나선 엑소는 이날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트'(LOVE ME RIGHT) 등 신곡 4곡을 포함한 2집의 리패키지 앨범을 발표한다.

관전포인트는 10년 차에도 건재한 빅뱅의 거센 기세를 4년 차인 엑소가 따라잡을까다. 그간 빅뱅이 음원, 엑소가 앨범 강자로 분류됐지만 최근 엑소가 음원차트에서 상승세를 보였고, 두 팀 모두 여름에 어울리는 밝은 에너지의 곡으로 승부수를 띄웠다는 점에서 주목할 대결이다.

물론 대중성과 음악성을 겸비한 빅뱅의 내공이 만만치 않다. 5월 신곡에서 감성적인 멜로디를 내세웠다면 이번엔 강렬한 비트와 전자 사운드의 '뽕뽕뽕', 경쾌한 리듬의 '위 라이크 투

파티'로 변화를 꾀했다.

빅뱅이 5월 차트를 점령한 데 이어 이번에도 예상대로 차트 독식에 나선만큼 엑소가 이들의 파죽지세 상승세를 뚫어야 하는 형국이다.

엑소 역시 핑키한 리듬의 밝은 댄스곡인 타이틀곡 '러브 미 라이트'와 '개코'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트렌디한 사운드의 '텐더 러브'(TENDER LOVE) 등의 신곡을 선보인다.

한 아이돌 그룹 기획사 흥보이사는 "빅뱅은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콘셉트와 개성 강한 이미지 덕에 여느 아이돌 그룹보다 '한 수 위'란 평가를 얻고 있다"며 "10~20대 팬을 기반으로 한 엑소가 대적하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격돌 구도로 인해 두 팬덤 간의 신경전이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엑소는 앨범으로 말리안셀라를 기록한 저력이 있을 정도로 한국과 중국 기반의 팬덤 규모가 커 팬들이 총력전을 펼친다면 결과는 예측불허다.

2PM은 이들의 격돌 뒤 시간 차를 두고 경쟁에 가세한다는 점에서 자생력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들이 지난 2~3년간 해외 투어에 치중하며 국내 음원차트 성적이 저조했다는 점에서, 지난해 낸 4집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내지 못한 것도 국내 시장을 비운 사이 후배 그룹들이 치고 올라온 환경 변화가 한몫했다.

그러나 환성 실적 부진으로 하락세를 보인 JYP가 지난해 4년 만에 영입 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고 미쓰에이, 박진영의 신곡 결과가 좋았다는 점에서 2PM도 상승 기류를 탈 가능성이 충분하다.

대신 2PM의 가장 큰 변수는 대형 걸그룹이 될 수도 있다. 비슷한 시기 소녀시대와 씨스타가 새 앨범을 준비 중이기 때문이다.

소녀시대는 당초 15일로 발매 일정을 계획했으나 뮤직비디오 촬영 일정이 늦춰지며 출시일을 확정 짓지 못했다. 씨스타도 이달 말 발매를 목표로 작업이 한창이다.

소녀시대는 지난 4월 일본 싱글의 한국어 버전을 냈지만 새 앨범은 지난해 2월 '미스터 미스터'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또 지난해 9월 멤버 제사가 탈퇴 후 국내에서 8인조로 처음 선보이는 앨범이란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씨스타 역시 지금껏 선보인 앨범 대부분이 차트 정상을 석권하며 음원 파괴력을 자랑했다. 2PM에게 두 팀 모두 만만치 않은 상대다.

예원, 손편지로 "철없던 행동...이태임에 죄송"

방송 촬영장에서 배우 이태임과 육설 논란에 휩싸였던 예원이 지난 5개월 만에 자필 편지로 이태임에 사과해 눈길을 끈다. 예원은 3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로 시작하는 자필 편지를 올렸다.

예원은 "이 글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려 죄송한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당시 처음 겪어보는 큰 여론에 독자적으로 입장 발표를 하기에는 많은 사람의 입장이 있어 쉽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고 편지를 쓴 이유를 설명했다. 예원은 이어 이태임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다.

그는 "따뜻함까지 활용하기" 촬영 당시 철이 없었고, 사회생활에 더 헌명하지 못했다"며 "저보다 더 오랜 꿈을 안고 노력하셨을 이태임 선배님께도 누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MBC TV 예능 프로그램 '우리 결혼했어요'(우결)의 출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예원은 "우결 촬영 때마다 많은 사람과 마주치는 게 너무 힘들고 두려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수없이 많았다"면서 "부족

한 저를 이끌어주시는 제작진, 촬영 스태프, 그리고 팬들이 저 때문에 의도치 않게 겪게 되는 일들을 제가 힘들다고 포기하는 게 더욱 무척 임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예원은 지난 2월 24일 제주도에서 진행된 MBC TV '따뜻함까지 과외하기' 촬영 중 이태임과 육설 논란에 휘말렸다. 여기에 예원이 거짓해명하는 것이 드러나면서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예원은 "이태임 선배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이 배우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원입니다."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2

Table listing EBS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4일(음 4월 18일 辛亥)

- 48년생: 예전대로 진행될 것이니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60년생: 충동적인 조처라면 곧 후회하게 될 것임을 알라. 72년생: 숨은 뜻까지 파악할 수 있는 해인이 절실하다. 84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31, 73

- 42년생: 친화력이 곧 기반의 요체가 될 것이다. 54년생: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겠다. 66년생: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전화위복의 상황이 될 것임을 틀림없으니라. 78년생: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7, 2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